

2024-26호

DaWinKS Weekly Report

DIGITAL(CRYPTO) ATM · PAYMENT

DPEC PLATFORM



Contents

1. Company Activity

- 다원KS - SBA 지원 메타버스 홍보 영상
- Digital ATM 운영 현황
 - :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 충전), 디지털머니 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 이마트24 : 명동중앙 / 스타필드코엑스몰2호 / 해운대신라스테이
 - 이랜드리테일 뉴코아백화점 : 강남 / 부천
 - 이랜드리테일 NC백화점 : 송파 / 신구로 / 강서
- 파트너사 소식
 - 포블, 이상거래 심리 조직 구축..."안전한 거래소 운영 위해 힘쓸 것"
- 다원KS - 혁신외환금융서비스
- Digital ATM/DTM & Crypto ATM/CTM 소개

2. Blockchain News

-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MS·애플 추월
- [마켓인]1년간 단 한 곳...STO 샌드박스 지정 또 나올까
- GPT-4 has passed the Turing test, researchers claim
- '코인세 유예' 검토 돌입한 기재부..."현실적 대안 없어"
- 호주 증권거래소,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 Ethiopia: From Crypto Ban to Crypto Regulation
- 바이든, '친암호화폐' 트럼프 견제 나서나... 내달 비트코인 라운드테이블 참석
- 인천시, 블록체인 기술로 시민 주도형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 과기부, CBDC 기반 디지털 이용권 등 14개 블록체인 사업 추진
- 금융위 상임위원 "가상자산 현물ETF 승인, 전통 금융과의 결합 신호"
- 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단속 강화...가상자산 자금도 검증
- 전세계, 느리지만 천천히 조금씩 암호화폐 산업 받아들이는 중
- 토큰증권 법제화 22대 국회에선 이뤄질까, 시중은행 물밑 작업은 여전히 분주

Contents

3. Blockchain Financial

- 암호화폐 600종 상장심사 예고... '대규모 상폐설'에 코인 하락세
- [상보] 금융당국, 버거코인도 국내 코인과 동일한 상장 기준 적용
...적격 해외시장 코인은 별도 심사
- 엘살바도르 나이트 부켈레 대통령, '비트코인 은행' 설립 제안
- 가상자산거래소 심사 더 엄격해진다
- "일본 은행들의 추락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을 올린다"-아서 헤이즈
- '100년 역사' 영국 투팅마켓, 비트코인 결제 도입... "첫날 매출 2배 기록"
- 규제 속으로 들어가는 韓 가상자산업...'개미 투자자' 어떻게 변할까
- 설 곳 잃는 코인마켓 거래소들... '지닥'마저 서비스 종료
- 근거없는 업비트 상폐 목록에 김치코인 급락 [매일코인]
- 금감원 "가상자산 발행·상장, 이번 가상자산법에 포함 안돼"
- '디지털 금' 넘어 '서비스 생태계'로?...기रो에 선 비트코인
- MM 막은 이용자보호법...쪼그라드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

4. DaWinKS



1. Company Activity

다윈KS - SBA 지원 메타버스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L9JKKL0sGo>

1. Company Activity

다윈KS - SBA 지원 메타버스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25_pbO1BUI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 운영 현황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충전), 디지털머니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 이마트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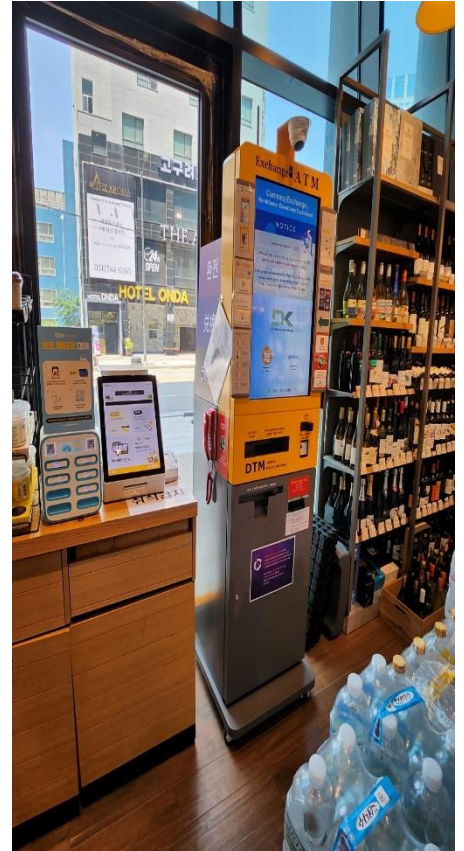
명동중앙로점
- 2023.12.01



스타필드코엑스몰2호점
- 2024.01.23



해운대신라스테이점
- 2024.06.11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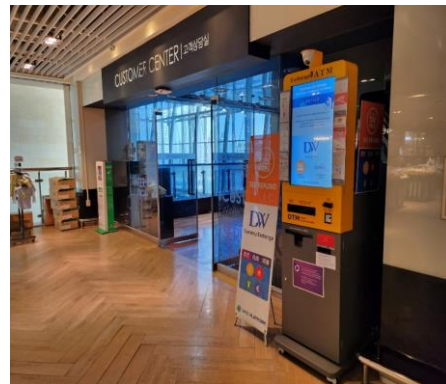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충전), 디지털머니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 뉴코아백화점

강남점
1층 후문 주차장산옆
- 2024.04.18



부천점
4층 고객상담실앞
- 2024.04.19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 운영 현황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충전), 디지털머니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 NC 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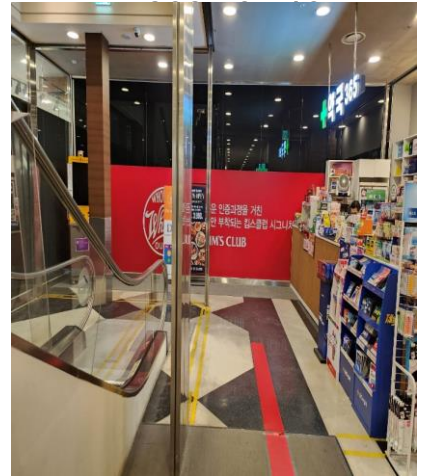
송파점
6층 고객상담실옆
- 2024.04.18



신구로점
지하1층 안내데스크옆
- 2024.04.19



강서점
지하1층 하행선
약국앞



1. Company Activity

포블, 이상거래 심리 조직 구축..."안전한 거래소 운영 위해 힘쓸 것"

이상거래 심리 조직 구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이상거래 심리 조직 구성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사진=포블게이트)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이상거래 심리 조직 구성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포블은 다음 달 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앞서 이상거래 심리 조직을 구성했으며, 지난달에 이상거래 상시 감시체계 축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포블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의 협력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며 사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포블 측 설명이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 Company Activity

다윈KS - 혁신외환금융서비스

Money Exchange

환전하러 은행까지 가야 돼?
NO!

은행, 환전소 급할때는 안 보이네!

환전의 신기술
이제, **무인환전기 DTM**으로 커피 뽑듯 간편하게 환전하세요!

여권, 신분증만 있으면 2천불까지 환전 가능하대구!

Crypto ATM/ CTM

코인(암호화폐)도 가능하대구?

OK, 정말!
CTM 으로 고고씹~

Money Exchange

To exchange money
Have to go to the bank?

NO!

Bank, Currency exchange I can't see when it's urgent!

New technology for currency exchange
Now, with the **DTM**,
Exchange money as easy as get a coffee!

If you have a passport or ID,
Can exchange up to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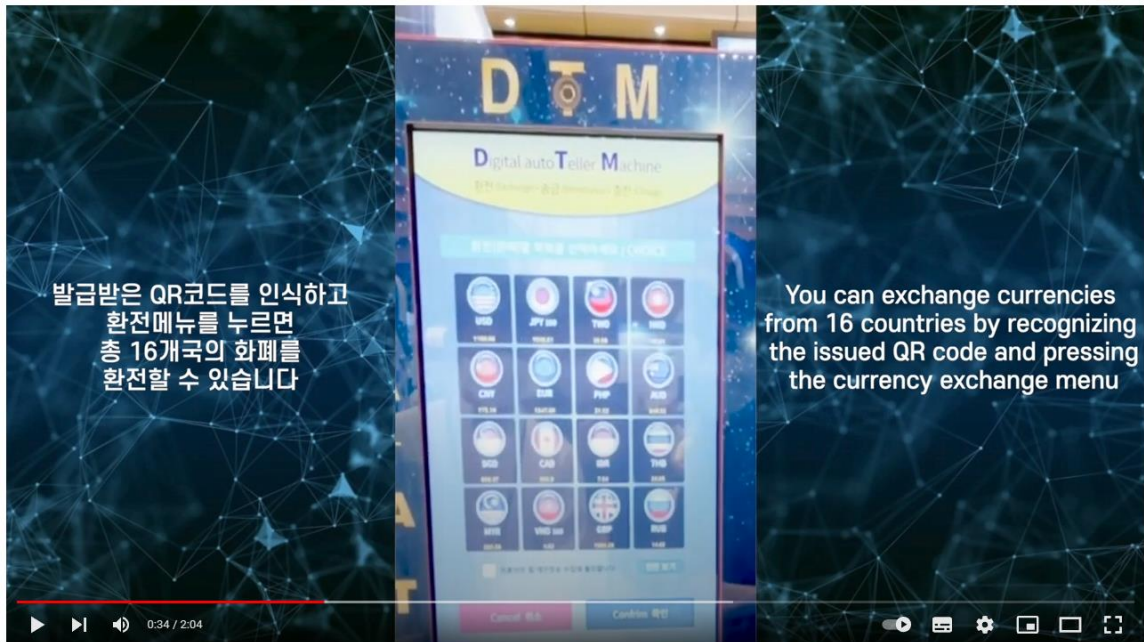
Crypto ATM/ CTM

Coin (cryptocurrency) too
It's po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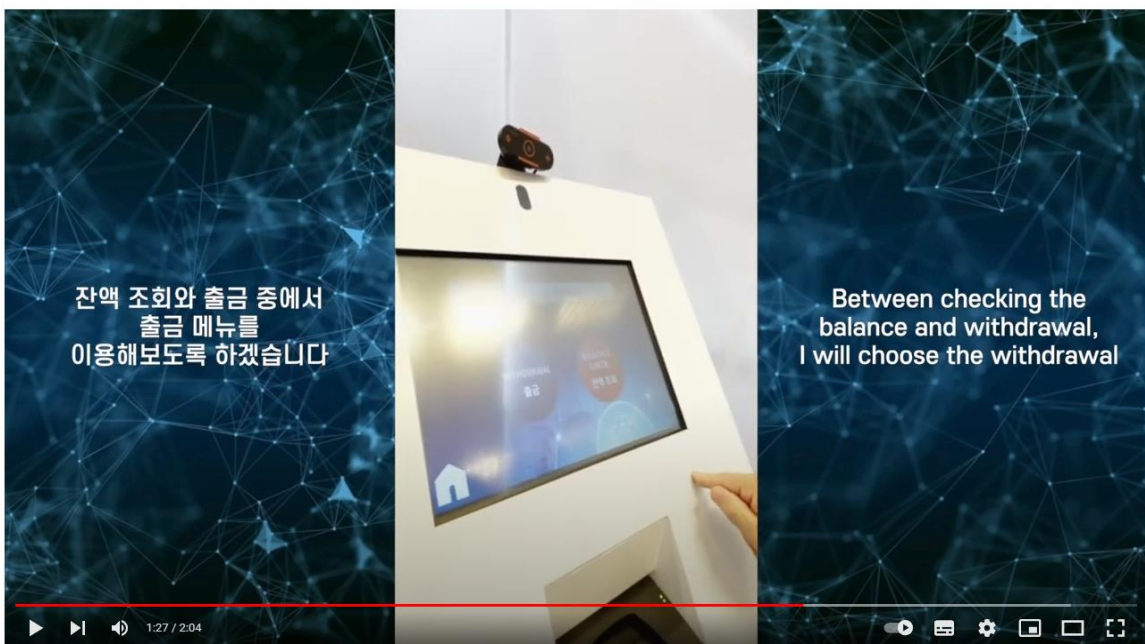
Okay, it's true!
Let's go to CTM!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DTM & Crypto ATM/CTM 소개



Digital ATM / DTM & Crypto ATM / CTM - 영어, 중국어 자막



Digital ATM / DTM & Crypto ATM / CTM - 영어, 중국어 자막

2. Blockchain News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MS·애플 추월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개발하는 미국의 기업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장 기업이 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GPU와 AI 칩 등을 개발하는 엔비디아의 현재 시가총액은 3조3,40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3조3,200억 달러와 애플의 3조2,900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엔비디아가 급등한 것은 미국의 최대 기술주 상장지수펀드(ETF)가 애플의 비중을 줄이고 엔비디아의 비중을 대폭 늘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4월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 채굴 시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 Blockchain News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MS·애플 추월

미국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남은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채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채굴 기업 라이엇은 경쟁사인 비트팜스를 인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채굴사인 클린스파크도 조지아주의 채굴 시설을 인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2010년 GPU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코드가 공개되고 암호화폐 채굴 시대가 열리면서 엔비디아의 GPU는 수요가 급등하기도 했다.

2. Blockchain News

[마켓인]1년간 단 한 곳...STO 샌드박스 지정 또 나올까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정기 신청 시작
올해 STO 관련 샌드박스 단 1건에 불과해
"STO 실험·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서 STO(토큰증권발행) 업계에서도 새로운 샌드박스 지정 사례가 나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2년간 STO 업계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곳은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참여한 '항공 컨소시엄'이 유일하다. 일각에선 STO 사업을 위해선 샌드박스에 지정돼야 하지만 인가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사업 진출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 Blockchain News

[마켓인]1년간 단 한 곳...STO 샌드박스 지정 또 나올까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전날인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TO 업계는 새로운 STO 상품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23년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STO 사업자의 샌드박스 지정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해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정례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 서비스'(항공금융 STO)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 2년간 STO 업계에서 샌드박스 지정 사례가 없었던 만큼 항공금융 STO의 샌드박스 지정은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항공금융 STO는 평균 100억원 수준의 항공기 엔진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해 발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지난해 △갤럭시아머니트리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브이엠아이씨(VMIC) △시리움(Cirium)은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항공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서비스를 만들었다.

업계에선 비즈니스 모델이 구조적으로 잘 짜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항공기 엔진을 매입한 후 엔진 실물을 신탁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맡겨야 한다. 신탁회사는 위탁자인 SPC와 엔진 신탁계약을 체결해 전자등록 방식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그간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항공기 부품 조각투자'라는 소재가 그간 시장에서 볼 수

2. Blockchain News

[마켓인]1년간 단 한 곳...STO 샌드박스 지정 또 나올까

없었던 신선한 서비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STO 업계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항공기 엔진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사업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것”이라며 “투자·거래·유통 구조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요구에 맞게 구축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토큰증권 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항공기 STO처럼 잘 짜인 구조를 만들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당국의 요구에 완전히 들어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STO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들이 STO 사업 진출 위해 샌드박스 신청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금이나 인력 부분에서 여력이 없다면 샌드박스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STO 업계가 조금 더 실험과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 Blockchain News

GPT-4 has passed the Turing test, researchers claim

Most people couldn't distinguish ChatGPT from a human responder, suggesting the famous Turing test has been passed for the first time.



(Image credit: Jesussanz/Getty Images)

We are interact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I) online not only more than ever — but more than we realize — so researchers asked people to converse with four agents, including one human and three different kinds of AI models, to see whether they could tell the difference.

The "Turing test," first proposed as "the imitation game" by computer scientist Alan Turing in 1950, judges whether a machine's ability to show intelligence is indistinguishable from a human. For a machine to pass the Turing test, it must be able to talk to somebody and fool them into thinking it is human.

<https://www.livescience.com/technology/artificial-intelligence/gpt-4-has-passed-the-turing-test-researchers-claim>

2. Blockchain News

GPT-4 has passed the Turing test, researchers claim

Scientists decided to replicate this test by asking 500 people to speak with four respondents, including a human and the 1960s-era AI program ELIZA as well as both GPT-3.5 and GPT-4, the AI that powers ChatGPT. The conversations lasted five minutes — after which participants had to say whether they believed they were talking to a human or an AI. In the study, published May 9 to the pre-print arXiv server, the scientists found that participants judged GPT-4 to be human 54% of the time,

ELIZA, a system pre-programmed with responses but with no large language model (LLM) or neural network architecture, was judged to be human just 22% of the time. GPT-3.5 scored 50% while the human participant scored 67%.

2. Blockchain News

'코인세 유예' 검토 돌입한 기재부..."현실적 대안 없어"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유예 검토 중
"과세기반 없이 무리한 입법...세수추계조차 못해"



[서울=뉴스시스] 조성우 기자 = 양도세 기준 상향과 가상 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빙셀 고객지원센터가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코인) 과세 유예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의 익명성에 대응할 현실적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21일 관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기재부가 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연초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말한 이후 3개월 여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법개정안 만들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621070027061>

2. Blockchain News

'코인세 유예' 검토 돌입한 기재부..."현실적 대안 없어"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지난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련 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유예됐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구조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구분되지 않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 방향이 정해진 상태다.

투자자 등 업계는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고 금융투자와 가상자산투자 간 소득세가 다를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제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할 과세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시스] 조성우 기자 = 양도세 기준 상향과 가상 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빙점 고객지원센터가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2. Blockchain News

'코인세 유예' 검토 돌입한 기재부..."현실적 대안 없어"

이달 발간된 예산정책연구에 실린 정연대·김완용·천태영의 '가상자산소득 관련 세법상 과세 쟁점: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최초 과세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에는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증하도록 설계된 현재 법령의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연대 세무사 등은 "현재 법령의 치명적 결함은 가상자산의 본질적 특성인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할 과세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장애의 주된 원인이고 이에 따라 2025년 시행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원 포착을 위해서는 거래자의 신분과 거래내역 정보가 중앙으로 집중돼야 한다"며 "상치하는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았을 때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시행과 정착,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투자 행태, 유사 자산의 소득 구분, 세부담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상자산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이 같은 논의가 현실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내역, 외부에서 거래소로 인입하는 거래내역을 확인 또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자체가 무리한 입법이라는 지적도 내놴다. 정 세무사 등은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새롭게 시행하기 위한 과세기반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한 무리한 입법"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수 추계조차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2. Blockchain News

'코인세 유예' 검토 돌입한 기재부..."현실적 대안 없어"



[서울=뉴스시스] 김근수 기자 = 비트코인이 미국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에서 직원이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최초 입법 후 두 차례 시행을 유예했고 3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5년 시행도 불투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 Blockchain News

호주 증권거래소,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호주증권거래소(ASX)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첫 번째 현물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반에크는 호주에서 반에크 비트코인 ETF(VBTC)를 발행하게 된다. 반에크는 지난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인 반에크 비트코인 트러스트(HODL)를 승인 받았다.

아태지역 반에크의 CEO인 아리언 네이론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비트코인이 많은 자문가와 투자자가 접근하고 싶어하는 신흥 자산 클래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증권거래소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호주 최초인 것은 아니다. 최근 모노크롬 비트코인 ETF(IBTC)는 호주 2위 증권거래소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호주에 상장됐다.

2. Blockchain News

Ethiopia: From Crypto Ban to Crypto Regulation

Key Takeaways:

- Ethiopia has moved from banning crypto to regulating it
- Bitcoin mining is getting active, miners flock to Addis Ababa
- Blockchain is helping Ethiopia curb fraud in education
- Mobile money industry is growing thanks to conducive fintech environment



A Shift in Strategy: Regulating Crypto

In June 2022, Ethiopia's central bank, the National Bank of Ethiopia (NBE) issued a statement declaring cryptocurrency trading illegal. The NBE said it would take "legal measures" against anyone found to be using cryptocurrencies for transactions in the country. "Birr is the only legal currency in Ethiopia and all financial transactions shall be effected through it," the central bank warned in a statement.

<https://www.emurgo.africa/blog/posts/ethiopia-from-crypto-ban-to-crypto-regulation>

2. Blockchain News

Ethiopia: From Crypto Ban to Crypto Regulation

The NBE cited concerns about financial instability, money laundering, and the lack of regulation surrounding crypto assets. This stance echoed the anxieties of many central banks in Africa, worried about cryptocurrencies' potential to undermine national currencies and centralized financial control.

However, in a surprising move in August 2022, the Ethiopian government signaled a change in course. The Information Network Security Agency (INSA) issued a directive requiring all cryptocurrency operators to register with them. "There is interest among individuals and entities in providing crypto services including mining and transfer," INSA said, warning that crypto players who fail to register would be prosecuted. This marked a shift from an outright ban to a more nuanced approach, aiming to regulate the cryptocurrency industry while protecting citizens from potential risks.

The reasons behind this shift can be attributed to the continued growth of the global crypto market, suggesting it was here to stay. The Ethiopian government also recognized the potential benefits of cryptocurrencies like facilitating cross-border payments and revolutionizing digital identity. Currently, INSA and other entities are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guidelines aimed at providing comprehensive supervision over the operations, economic ramifications,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the crypto sector.

Although Ethiopia has not yet enacted laws allowing for the use of cryptocurrencies, there is a notable increase in crypto adoption, as individuals engaged in crypto activities are actively broadening their endeavors within the nation. There are over 1.8 million crypto users in Ethiopia. Interest is burgeoning

2. Blockchain News

Ethiopia: From Crypto Ban to Crypto Regulation

both within the private sector and in government initiatives aimed at crafting a regulatory framework to ensure stab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Developers, entrepreneurs, and government officials alike are increasingly curious about the foundational technologies behind Bitcoin and their potential applications across various sectors beyond finance.

Ethiopia's journey from banning cryptocurrencies to cautiously exploring their potential use case study in navigating the complexities of a rapidly evolving technological landscape. It highlights the need for a nuanced approach that balances innovation with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citizens and maintain financial stability.

Ethiopia recognizes the potential of the underlying technology – blockchain. Blockchain offers a secure and transparent way to record transactions, potentially revolutionizing sectors like supply chain management and land registration. This recognition has fueled interest in exploring blockchain applications without necessarily embracing cryptocurrencies themselves.

Digital Identity Project: Africa's Best Blockchain Use Case

Fraud in education has long been a pervasive issue in Ethiopia, undermining the integrity of academic qualifications and eroding trust in the education system. Fake diplomas, forged transcripts, and fraudulent certifications have plagued the country's educational landscape, posing significant challenges for employers, academic institutions, and students alike. To tame this trend, in 2021, the government signed a partnership with research and engineering firm Input

<https://www.emurgo.africa/blog/posts/ethiopia-from-crypto-ban-to-crypto-regulation>

2. Blockchain News

Ethiopia: From Crypto Ban to Crypto Regulation

Output Global (IOG) to implement a digital student identity program under the Cardano blockchain across more than 3,000 schools.

In the deal between IOG and the Ethiopian government, the goal is to create a national database of the country's students' and teachers' credentials using a decentralized digital identity solution. "It felt quite appropriate to deploy the technology in the education sector based on the Prime Minister's comments on these issues," says John O'Connor, the director of African operations at IOG. The project targets a large number of students both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By digitizing educational records and storing them on a blockchain-based platform, Ethiopia aims to eliminate the risk of tampering or falsification, ensuring the authenticity of academic qualifications. This not only helps to safeguard the value of legitimate credentials but also provides employers and academic institutions with a reliable means of verifying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individuals.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Ethiopia's digital project is the development of a blockchain-based credentialing system that allows educational institutions to issue digital certificates directly to students. These digital credentials are cryptographically signed by the issuing institution, making them tamper-proof and easily verifiable.

Moreover,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ensures that educational records are securely stored and accessible only to authorized parties, protecting the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students' data. This addresses concerns about data breaches and identity theft, which are common in traditional paper-based systems.

<https://www.emurgo.africa/blog/posts/ethiopia-from-crypto-ban-to-crypto-regulation>

2. Blockchain News

Ethiopia: From Crypto Ban to Crypto Regulation

The implementation of Ethiopia's digital initiative has already yielded promising results in curbing fraud in education. By digitizing educational records and making them easily verifiable, the country has significantly reduced the prevalence of fake diplomas and forged transcripts. This has bolstered the credibility of Ethiopia's education system and enhanced the value of academic qualifications earned in the country.

Furthermore, Ethiopia's digital project has empowered employers to make more informed hiring decisions by providing them with access to accurate and up-to-date information about job candidates' educational backgrounds. This has helped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the workforce and foster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country.

It is such efforts that contributed to the World Bank's December approval of a \$350 million finance package to support Ethiopia's digital identity drive for 90 million Ethiopians.



2. Blockchain News

Ethiopia: From Crypto Ban to Crypto Regulation

A Flock to the Grid: Bitcoin Miners Power Up in Addis Ababa

The Ethiopian capital Addis Ababa, with its abundant supply of cheap electricity and relatively low operating costs, has emerged as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Bitcoin miners seeking to capitalize on the city's favorable conditions.

Ethiopia possesses approximately 5,200 MW of installed generation capacity, primarily sourced from hydropower, which accounts for about 90% of the total. The remaining 10% is derived from wind and thermal sources. Additionally, Ethiopia is in the final stages of constructing the Grand Ethiopia Renaissance Dam (GERD), anticipated to have an installed capacity of 5,150 MW. This abundanc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has made electricity affordable and abundant, making it an ideal environment for bitcoin mining, an energy-intensive activity.

The allure of bitcoin mining lies in its potential for lucrative rewards. Miners who successfully solve complex mathematical puzzles and validate transactions are rewarded with newly minted bitcoins, providing them with a lucrative source of income.

This financial incentive has attracted a diverse array of participants, ranging from individual hobbyists to large-scale mining operations. Bitcoin mining consumes vast amounts of power, so access to cheap electricity is a critical competitive advantage. The trend has seen a surge in the past two years, with established mining companies setting up shop in Addis Ababa and individual miners looking to Ethiopia as a more lucrative alternative to traditional mining

<https://www.emurgo.africa/blog/posts/ethiopia-from-crypto-ban-to-crypto-regulation>

2. Blockchain News

Ethiopia: From Crypto Ban to Crypto Regulation

hubs like China, Kazakhstan, Canada and Russia.

The surge in bitcoin miners in Addis Ababa, especially from China, hinges on China's ban on crypto trading and mining in 2021 to control financial risks and reduce energy consumption. Bloomberg reports that the Ethiopian Energy Authority has struck power deals with 21 bitcoin mining companies, 19 of which are Chinese.

Since 2022, Ethiopia has permitted Bitcoin mining mainly because the companies pay in foreign currency for the electricity they consume. During the past decade, the country has strengthened its relations with China. Notably, numerous Chinese firms participated in constructing the \$4.8 billion dam, which bitcoin miners utilize for power.

In February, the Ethiopian Government's investment arm, Ethiopian Investment Holdings (EIH), signed a \$250 million pact with Honk-Kong-based West Data Group's Center Service PLC to commence bitcoin mining operations. The agreement also involves the construction of a large data centre to manage crypto mining and AI training activities.



<https://www.emurgo.africa/blog/posts/ethiopia-from-crypto-ban-to-crypto-regulation>

2. Blockchain News

Ethiopia: From Crypto Ban to Crypto Regulation

M-Pesa Records Significant Growth in Ethiopia

For decades, Ethiopia has grappled with limited financial inclusion, hindering economic progress and stifling opportunities for millions. The country's banking infrastructure, characterized by brick-and-mortar branches primarily concentrated in urban areas, failed to reach the majority of its population, especially those residing in rural and remote regions. However, the advent of mobile money is reshaping this narrative, bridging the gap between traditional banking services and the unbanked populace.

Last August, Kenyan mobile money platform M-Pesa ventured into the Ethiopian market, thanks to a conducive fintech environment. With a government committed to fostering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regulatory frameworks favoured the M-Pesa's investment into the country. M-Pesa received a license from the National Bank of Ethiopia.

Eager to capitalize on Ethiopia's untapped market potential, M-Pesa has been expanding in usage. Its network now covers 33% of the population, with 3.1 million active M-Pesa customers, 26,000 M-PESA cash out points and 43,000 merchants. As of December 2023, M-Pesa had recorded 9 million customer additions and 4.3 million 90-day active customers. It has also integrated its services with 9 banks.

While local telecommunications company Ethio Telecom runs its own mobile money service - Telebirr - with more than 34 million subscribers, it is M-Pesa's innovation that is set to further spice up crypto adoption in the country. M-Pesa

<https://www.emurgo.africa/blog/posts/ethiopia-from-crypto-ban-to-crypto-regulation>

2. Blockchain News

Ethiopia: From Crypto Ban to Crypto Regulation

already allows online merchants to buy and sell cryptocurrencies and stablecoins on major crypto exchanges Binance and Paxful.

Ethiopians familiar with using M-Pesa for everyday transactions can easily adapt to buying and selling crypto using a similar platform. This reduces the learning curve and increases the comfort level for people considering crypto. M-Pesa allows for quick and easy mobile money transfers. Integrating crypto purchases and sales within the Ethiopian M-Pesa platform could create a seamless and convenient user experience for Ethiopians entering the crypto space.

DISCLAIMER: The information in this content (website or other form) does not represent an offer or commitment to provide any product or service. The analysis, opinions and estimates expressed in this content are those of the respective authors, and may differ from those of EMURGO Africa and/or other EMURGO Africa employees and affiliates. Copying, re-publishing or using this material or any of its contents for any other purpose is strictly prohibited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from EMURGO Africa.

2. Blockchain News

바이든, '친암호화폐' 트럼프 견제 나서나... 내달 비트코인 라운드테이블 참석



바이든 행정부가 내달 초 비트코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매거진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7월 초 미국 의원로 칸나(Ro Khanna, D-CA)와 억만장자 암호화폐 투자가 마크 큐반(Mark Cuban)을 포함한 몇몇 의원들과 함께 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매체는 칸나 사무실에서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를 검증했으며, 칸나의 사무실은 이 회의를 '블록체인 혁신 리더와 정책 입안자 사이의 가장 중요한 회의'로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의 목적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혁신을 미국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다. 칸나와 큐반은 암호화폐 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지지해왔으며, 칸나는 최근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을 지지한 바 있다.

2. Blockchain News

바이든, '친암호화폐' 트럼프 견제 나서나... 내달 비트코인 라운드테이블 참석

칸나는 "미국에서는 블록체인 혁신이 필요하며, 규제 명확성과 적절한 소비자 보호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 법안은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화당 주자이자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SEC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집행 접근 방식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바이든이 FIT21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과거 블록체인 규제에 대한 발언에서 태도가 변화했다.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에서 거의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2. Blockchain News

인천시, 블록체인 기술로 시민 주도형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블록체인 기반 '자원순환을 위한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2024년 지역 블록체인 공공분야 확산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인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천시 데이터산업과, 자원순환과, 5개 군·구가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에코허브플랫폼)를 기획하게 됐다.

에코허브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신원증명(DID)을 발급해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분산 저장하고, 시민들의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하면 다양한

2. Blockchain News

인천시, 블록체인 기술로 시민 주도형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 주도형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플랫폼은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가게와 무인회수기에 회수된 자원순환 활동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해 개인의 자원순환활동 이력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원순환가게에는 사물인터넷(IoT) 장치를 도입해 그동안 수기로 무게를 측정했던 업무 과정을 디지털화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실증할 계획이다.

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에코허브플랫폼이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체감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되는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민간산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 Blockchain News

과기부, CBDC 기반 디지털 이용권 등 14개 블록체인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일환으로서 24년 총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을 바꿀 혁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자 작년부터 과제 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되며, 18일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사업으로는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디지털 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분야 지원사업으로는 웹2 서비스 및 기업을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97>

2. Blockchain News

과기부, CBDC 기반 디지털 이용권 등 14개 블록체인 사업 추진

위한 웹3 포털, 소상공인 점포 경영관리 및 금융지원 플랫폼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분야 지원 사업

한국은행은 각종 바우처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일환으로, CBDC에 기반하여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기능을 테스트해 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시 실물지갑에 종이 상품권과 카드를 소지해야 했다면, 이번 테스트에서는 사용처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QR인증 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의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의 취업활동 부담완화를 위해 취업과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 그간 개별 기관으로부터 일일이 발급·제출해야 했던 구직관련 증명서(자격증 정보, 학력, 경력, 교육이수 정보)를 누구나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디지털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이력서로 생성하여 채용기업 등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고용24'를 통해 제공되며, 국민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연계·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9백만 건의 입사지원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종이문서 인쇄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2. Blockchain News

과기부, CBDC 기반 디지털 이용권 등 14개 블록체인 사업 추진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사이버대학 수강이력, 대학공개강의 등 고등평생교육과정의 학습이력 증명을 위한 디지털배지 발급 플랫폼을 구축하여 성인학습자의 교육이력 관리를 지원하고, 한국고용정보원 사업과 연계해 국민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외에도 △전남 강진군의 공공비축미 수매 종합 플랫폼 △법무부의 공증문서 전자화, △인천시의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서비스 등의 공공 분야 사업이 추진된다.

◆민간분야 지원사업

민간 분야에서는 웹2→웹3 서비스 전환·연계 플랫폼 등 8종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다.

씨피랩스는 웹·앱 서비스 개발자가 블록체인 개발언어를 알지 못해도 손쉽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개발지원 포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시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전문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발언어를 활용해 간단한 API연동만으로 손쉽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블록체인 도입비용 절감뿐 아니라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또한 오아시스비즈니스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매출, 비용 등 재무 관리를 도와주고, 금융상품(투자, 대출 등) 가입시 기록된 재무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은 기업 회계보고서와 같이 검증된 데이터가 없어 매장의 적정한 권리금을 산정하거나, 은행 등에서 금융상품 가입시 불리한 조건이 많았다. 앞으로는 본 서비스로 정확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회계사 등이 검증해 누구나 쉽고 신뢰도 높은 재무 관리가 가능하며, 매장 인수인계, 대출 심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Blockchain News

과기부, CBDC 기반 디지털 이용권 등 14개 블록체인 사업 추진

베리워즈는 전기오토바이 운행 데이터(주행거리, 충전 등)를 기반으로 운전자 개인의 탄소감축량을 산출해 크레딧*으로 발행하여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올해는 전기오토바이 이용률이 높은 캄보디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발행된 탄소감축 크레딧은 우리나라 정부 혹은 기업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민간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타임교육C&P는 초·중·고 학생의 학원 학습이력을 디지털배지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보안이 강화된 전자지갑을 API 연동만으로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농협은행은 토큰증권 발행을 원하는 조각투자사업자에게 발행을 지원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한다.

아울러, 제이엠시스는 산악운동(등산, 자전거 등) 경로를 NFT로 발급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끝으로 파라메타는 공공기관 등이 별도의 블록체인 구축 없이 공공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블록체인 서비스(DID, NFT, 전자지갑)를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기획·운영·관리할 수 있는 공공용 공동인프라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배지 등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디지털기술을 통한 페이퍼리스화와 같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 말하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분야를 넘어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투표, 압표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선보일 수 있는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 Blockchain News

금융위 상임위원 "가상자산 현물ETF 승인, 전통 금융과의 결합 신호"



[사진= 금융위원회]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은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이 시작됐다는 신호"라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취약점이 없는지 등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김 위원이 지난 1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FSB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됐으며 글로벌 금융안정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구다.

회원국들은 총회에서 FSB가 지난해 발표한 가상자산과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권고안의 이행에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가상자산은 규제차익거래 리스크를 감안할 때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FSB는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의 이행 상황도 지속해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제기되는 리스크 등에 대해서 추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Blockchain News

금융위 상임위원 "가상자산 현물ETF 승인, 전통 금융과의 결합 신호"

이에 김 상임위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국가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이라면서 "이런 결합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 취약 요인들이 심화하고 있는지, 각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FSB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회원국들은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에서 비롯된 위기와 관련해 효과적인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은행 위기 시에 대비한 공공부문 안전망, 금융시스템의 금리와 유동성 리스크, 기술 발전과 소셜미디어 확산이 예금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위원은 "한국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기 시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에서 비롯된 자금경색 상황을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소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회원국과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 Blockchain News

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단속 강화...가상자산 자금도 검증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입 증가 조짐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 로고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은 364건, 총 204억원 규모다.

적발 금액은 전년 동기(138억원) 대비 47.8% 급증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여행객이 지속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외화를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송금, 영수, 환전 내역 등 수출입 및 외환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휴대 반출하는 것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2. Blockchain News

전세계, 느리지만 천천히 조금씩 암호화폐 산업 받아들이는 중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 규제 속 대중화 확산
유럽, 미카(MiCA) 통해 강력한 규제 본격화
美 대선후보도 암호화폐 기부금 수령 논의
국내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법' 본격 시행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규제를 시작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30일부터 암호화폐 규제법(MiCA)이 시행되며 국내에서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의 동향이 최근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는 느리지만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암호화폐 생태계를 받아들이고 있다. 주요 시장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산업으로 편입되는 것이기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오는 6월 30일(현지시각) 발효되는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에 따라 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술표준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초안에는 암호화폐 회사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스트레스 테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및 준비금 유동성 요구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2. Blockchain News

전세계, 느리지만 천천히 조금씩 암호화폐 산업 받아들이는 중

올해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미카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영이 금지될 수 있다. 또 EU 외부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도 EU 회원국에서 거래가 이뤄질 경우 미카 규정을 준수해야 해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운용사 반에크(VanEck)의 디지털자산 리서치책임자 매튜 시겔(Matthew Sigel)은뱅크오브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 자료 내용 중 일부분인 '암호화폐는 더 이상 정부, 통화 및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에 대한 단순한 투기적 헤지가 아니다', '(암호화폐) 기술은 합법적인 파괴자다' 등의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간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냈던 바이든 美 대통령 후보도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통해 암호화폐로 정치 기부금을 받기 위해 업계와 논의 중이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로 선거 기부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바이든 측도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어느 쪽이 대선에서 승리하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전보다는 낙관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만의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13일 공식적으로 암호화폐산업협회를 설립,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3일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총 24개의 암호화폐 기업이 대만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협회에 가입했다. 이 협회의 의장은 대만의 주요 거래소 중 하나인 비토프로(BitoPro)의 설립자 겸 CEO인 타이탄 쉹(Titan Cheng)이 맡게된다. 또 대만 소재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XREX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수익책임자(Chief Revenue Officer)인 윈스턴 샤오(Winston Hsiao)가 협회의 부회장을 맡는다.

2. Blockchain News

전세계, 느리지만 천천히 조금씩 암호화폐 산업 받아들이는 중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규제가 본격화된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루나·테라 사태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등의 사건을 계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시행령(안)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했다.

이용자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암호화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감독규정(안)에서 그 비율을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암호화폐를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Blockchain News

토큰증권 법제화 22대 국회에선 이뤄질까, 시중은행 물밑 작업은 여전히 분주

시중은행이 토큰증권발행(STO) 등 토큰증권(ST)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분주히 벌이고 있다.

향후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해 토큰증권시장이 본격 개화했을 때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 시중은행의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분주히 진행하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정상화하면 정무위원회에서 토큰증권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최근 관련 포럼도 계획돼 있는 등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비롯해 국회에서도 소비자 권익 향상 차원에서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7월3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는 블록체인포럼과 동국대 법무대학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디지털혁신연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등이 주최하는 '2024 하계 산학연 디지털자산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2. Blockchain News

토큰증권 법제화 22대 국회에선 이뤄질까, 시중은행 물밑 작업은 여전히 분주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토큰증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다. 민병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배정이 확정됐고 박수영 의원은 현재 정무위 배정을 노리고 있다.

여야는 이미 모두 지난 총선에서 토큰증권 관련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토큰 증권 입법 연내 마무리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증권형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을 각각 총선 공약집에 담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들도 향후 토큰증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바이셀스탠다드'와 토큰증권과 조각투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디지털 자산운용 플랫폼 '피스'를 통해 명품시계와 미술품 등을 조각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9월 SK·삼성증권과 구성한 컨소시엄은 최근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하고 구체적 사업 전략을 짜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최근 교보증권도 합류했다.

신한은행도 예치금 관리 서비스 개발, 조각투자 기초자산 기업 확보 등 다방면에서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 플랫폼과 연계해 발행과 유통사업을 확대할 구상도 세웠다.

이를 통해 6월부터는 신한금융의 전자결제(PG) 서비스 기반 예치금 수납 관리

2. Blockchain News

토큰증권 법제화 22대 국회에선 이뤄질까, 시중은행 물밑 작업은 여전히 분주

서비스를, 9월 이후로는 서울옥션블루와 열매컴퍼니 등 미술품 조각투자사 서비스도 도입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기초자산 기업 대상 솔루션과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라며 "예치금 관리와 계좌관리기관, 상품 확대 등 3단계에 걸친 토큰증권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해 뒀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NH농협은행으로 여겨진다.

농협은행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사업자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사업자가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10월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초에는 블록체인 팀을 새로 만들고 구성원도 대폭 늘리는 등 토큰증권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장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다.



▲ NH농협은행은 토큰증권 시장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Blockchain News

토큰증권 법제화 22대 국회에선 이뤄질까, 시중은행 물밑 작업은 여전히 분주

농협은행 관계자는 "CBDC와 토큰증권을 신사업으로 보고 강력히 힘을 주고 있다"며 "아직 법제화하지 않아 당장의 수익모델을 수립하기 보다는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사업자에 플랫폼을 지원하고 제도화 전에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향후 시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물밑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증권사가 그동안 증권발행과 공시 등 관련 업무를 다룬 만큼 토큰증권시장이 본격 개화하면 증권업계가 주도권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은 하반기에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두고 국회와 정부 움직임을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이후 토큰증권시장 관심은 다소 감소했다"며 "앞으로 관건은 법률 개정안의 재발의 여부로 하반기 이후 토큰증권 법제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은 다만 현재로서는 정쟁과 다른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대 국회에서는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며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야당 정무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토큰증권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암호화폐 600종 상장심사 예고... '대규모 상폐설'에 코인 하락세

| 투자자 불안... 업비트, 긴급진화



국민일보DB

국내에 상장된 암호화폐 600종에 대한 상장 심사가 예고되자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6만5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등 가격 변동성도 커졌다.

20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50분 기준 전날보다 0.21% 하락한 6만542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1주일 전보다 2.95% 떨어졌다. 오전에는 6만4831달러에 거래돼 한때 6만5000달러 선이 무너졌다. 이더리움은 전날보다 0.51% 오른 3579달러에, 솔라나는 3.76% 떨어진 136달러에 거래 중이다. 도지코인과 페페도 각각 1.14%, 1.97% 하락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상장 코인 가격이 떨어졌다.

3. Blockchain Financial

암호화폐 600종 상장심사 예고... '대규모 상폐설'에 코인 하락세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현재 거래 중인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투자자들 불안은 더욱 커졌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조만간 확정해 법 시행과 함께 이를 전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29곳 가상자산거래소는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해야 한다. 거래소들은 이후 분기별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종목이 발견되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규모 상폐(상장 폐지) 종목' 지라시가 돌고 있다. 업비트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일부 커뮤니티에 퍼진 '거래지원 종료 목록'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은 대량 거래지원 종료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코인 시장이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도 "다만 심사 기준이 명확히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시그널만 나타나면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3. Blockchain Financial

[상보] 금융당국, 버거코인도 국내 코인과 동일한 상장 기준 적용
...적격 해외시장 코인은 별도 심사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부대 조치로 해외의 코인, 이른바 버거코인에 대해서도 국내 프로젝트와 동일한 상장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해외의 적격 거래소에 상장 돼 2년 이상 거래한 코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체심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4일 블록미디어가 단독 입수한 금융당국 문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버거코인도 국내 관련 규정과 규칙에 따라 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를 마련, 7월 19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 Blockchain Financial

[상보] 금융당국, 버거코인도 국내 코인과 동일한 상장 기준 적용
...적격 해외시장 코인은 별도 심사

상장요건 9가지

코인 상장 심사요건은 총 9가지다.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이다. 해당 요건은 분기에 1회 유지 심사를 한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크게 네 분야다. 1) 발행주체의 신뢰성 2) 이용자 보호장치 3) 기술 보안 4) 법규 준수다.

형식적 심사에서 해당 사항이 발견되면 상장이 안 된다.

1) 발행주체의 신뢰성에서는 두 가지를 본다.

첫째,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미공시,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변경 반복

둘째, 발행주체 및 운영주체의 주요 지갑 정보 미확인

2) 이용자 보호 장치에서도 두 가지 사안이 있다.

첫째, 발행주체와 운영주체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설명자료(백서) 미확인

둘째, 온체인 거래 감시수단(블록 익스플로러) 부재

3) 기술 보안도 두 가지 항목에 걸리면 상장을 불허한다

3. Blockchain Financial

[상보] 금융당국, 버거코인도 국내 코인과 동일한 상장 기준 적용
...적격 해외시장 코인은 별도 심사

첫째, 가상자산, 지갑, 분산원장 등에 원인 불명 또는 치유되지 않은 보안 사고 발생

둘째, 분산원장에 내재된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스 코드 미확인, 중요 사건
이벤트 함수 설정 부적절

4) 법규 준수도 두 개 항목이 있다.

첫째, 자기발행 코인, 다크코인, 가상자산 제외 대상 등

둘째, 위법행위 사용 목적 또는 이용 개연성, 가상자산 거래지원이 현행법규 위반 등

이상 8 가지 항목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되면 상장을 할 수 없다.

유지심사...질적 요건 안 맞으면 상폐

금융당국은 아홉번째 질적 심사요건도 제시했다.

- 발행, 운영, 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 사회적 신용 및 과거 사업이력
- 가상자산 관련 중요 사항 공시 여부 및 정도
-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내역 및 정도, 변경절차의 투명성 및 합리성
-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중요 사건 관련 함수의 접근 통제권 설정의 적절성 등이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74013>

3. Blockchain Financial

[상보] 금융당국, 버거코인도 국내 코인과 동일한 상장 기준 적용
...적격 해외시장 코인은 별도 심사

질적 요건은 분기에 1회 유지심사를 한다. 유지심사를 통과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버거코인 상장 규정

금융당국은 버거코인에 대해서도 상장 조건을 준수케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충분한 규제 체계가 갖추어진 적격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키로 했다.(대체심사)

적격 해외시장은 IOSCO 이사회 구성 국가 등에 소재하고 진입규제, 감독당국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는 법화 거래소를 뜻한다.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 이사회 구성 국가는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 온타리오, 퀘벡,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35개 국가이다.

대체심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코인 상장 심사시 중요사항 공시 및 백서 관련 요건 심사를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버거코인은 해외 프로젝트이나 국내에서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발생하는 코인을 뜻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거래소들이 함량 미달의 버거코인을 상장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3. Blockchain Financial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비트코인 은행' 설립 제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가 비트코인을 위한 민간투자은행(BPI)의 설립을 제안했다.

14일(현지 시각) 업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대사 밀레나 마요르가는 "엘살바도르에 대한 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는 달러와 비트코인의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금융 옵션을 다양화할 수 있는 민간투자은행을 제안한다"고 X를 통해 밝혔다.

제안된 은행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은행보다 더 낮은 제한을 가진다.

이는 부켈레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로운 친 비트코인 정책으로 부켈레가 두 번째 임기의 대통령에 취임한 지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92>

3. Blockchain Financial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비트코인 은행' 설립 제안

엘 문도 보도에 따르면 은행은 BPI는 해외 은행이나 금융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기존 은행과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제한도 철폐된다.

또 새로운 민간 투자는 5,000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창출되어야 하며 최소 2명의 주주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엘살바도르의 경제부 장관은 "입법자들은 프로젝트 목표를 논의하기 위해 공무원을 부르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라며 "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치지도 않았다"며, 기획 단계임을 강조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가상자산거래소 심사 더 엄격해진다

특금법 개정안 발의...형법·특경법 위반도 심사
대표 등 사기·재산국외도피 때도 신고 불수리



사기,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을 위반해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사업자에 대한 검증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최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시 금융관련 법률 뿐만 아니라 형법과 특경법 위반 사항도 검증해 신고 수리를 못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 Blockchain Financial

가상자산거래소 심사 더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표와 임원 등이 기존 △범죄수익은닉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은 물론 앞으로 형법이나 특경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국은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현행 형법과 특경법은 사기, 배임, 횡령, 재산국외도피, 알선수재, 부당행위 등 범죄에 대해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나 임원, 대주주의 모든 범죄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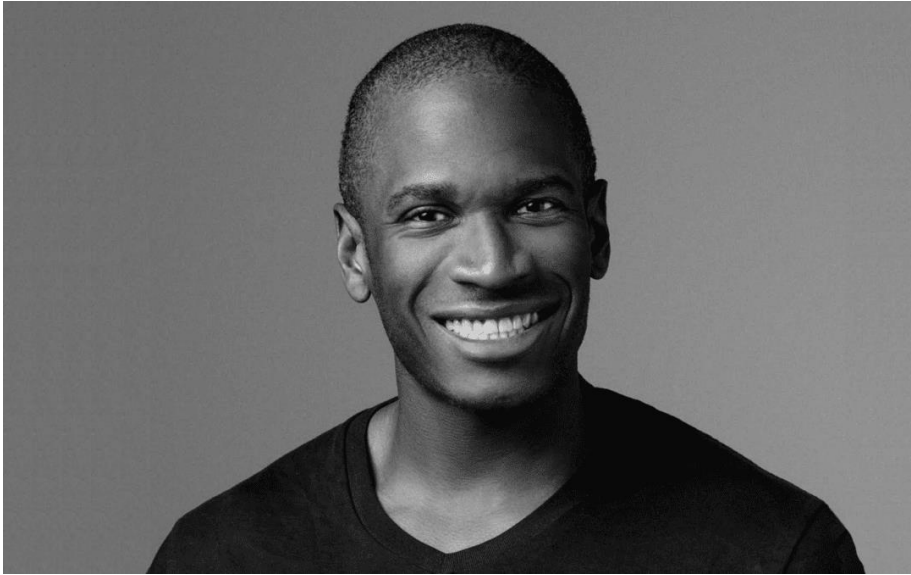
발의안은 개정 이유에 대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경우 금융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형법, 특경법 등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해 다른 법률을 위반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규칙인 특금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대주주를 사업자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대주주는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면 등과 무관하게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포함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법 시행과 함께 관련 법규정의 정비와 추가 입법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가 목적인 만큼 거래소 등 사업자 심사와 감독은 갈수록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일본 은행들의 추락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을 올린다”-아서 헤이즈



비트파이넥스 공동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가 일본 은행들이 대량의 외국 채권, 주로 미국 국채(US Treasury)를 곧 매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아서 헤이즈는 블로그를 통해 일본 은행들이 직접 국채를 매각하는 충격을 막기위해 일본 중앙은행(BOJ)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미 국채 환매조건부 매입(FIMA Repo Facility)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한 달러 유동성 증가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채 환매조건부 매입(FIMA Repo Facility)은 미 연준이 외국 중앙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화 자금을 외국 중앙은행 등에 공급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2020년 3월 31일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가 2021년 7월 27일 이를 상설화했다.

이 제도는 외국 중앙은행 등이 보유한 미 국채를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달러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dollar liquidity backstop)다. 외국

3. Blockchain Financial

“일본 은행들의 추락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을 올린다”-아서 헤이즈

중앙은행은 손실을 보고 있는 국채를 매각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은 국채 매도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일본의 대형은행인 농림중앙금고(Norinchukin Bank)는 2025년 3월말까지 보유한 미국과 유럽 정부 국채 10조엔(630억 달러)를 매각할 계획이다. 이 은행이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한 국채들이 금리상승으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국채매각은 손실로 확정된다. 은행은 이를 통해 손실규모가 1조 5000억 엔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율 엔당 8.75원을 고려할 때 모두 13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셈이다.

아서 헤이즈는 자신의 블로그 제목을 “시카타 가 나이(Shikata ga nai)”라고 제목을 붙였다. 이는 “어쩔 수 없다”는 포기를 의미하는 일본 말이다.

미국 통화 정책으로 일본 은행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일본 은행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달러-엔 캐리 트레이드를 사용했다. 이들은 국내 채권의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익률 대신, 환위험을 헤지한 상태에서도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하는 미국채에 투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지급된 경기 부양금과 봉쇄 조치로 인해 미국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19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다. 이는 미국채 보유자들에게 재앙적 결과를 초래했으며, 1812년 전쟁 이후 최악의 채권 시장이 되었다. 실리콘밸리은행(SVB)등 미국 은행이 파산한 이유도 미국채가격 폭락 때문이다.

연준(FED)은 미 국채 환매조건부 제도를 통해 중앙 은행들이 미국채를 담보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미 국채매각과 가격하락이란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3. Blockchain Financial

“일본 은행들의 추락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을 올린다”-아서 헤이즈

헤이즈는 FIMA 레포 증가는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은 달러 유동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에 유리한 은밀한 돈 풀기이다. 헤이즈는 애틀랜타 연준의 보고서를 통해 이 메커니즘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채가 공개시장에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했다고 밝혔다.

일본은행(BOJ)은 FIMA 레포를 사용해 일본 은행들이 시장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BOJ가 은행들로부터 직접 미국채를 매입함으로써,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BOJ는 상업 은행과 달리 자본 적정성이나 리스크 관리 제약을 받지 않는다. FIMA 레포 시설은 BOJ가 레포를 매일 롤오버할 수 있게 해주며, 미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한다. 금리도 연 0.25로 매우 낮다.

헤이즈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채의 수익률 급등을 막기 위해 FIMA 레포를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헤이즈는 일본 은행들이 (일본 중앙은행에) 미국채를 매각함으로써 더 많은 달러 유동성이 나오고 암호화폐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그는 달러 공급 증가가 시장을 지지한다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할 것을 조언했다. 연준이 미국채를 담보로 시중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은 암호화폐 강세장의 또 다른 기동이다. 현재의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 공급이 증가해야 한다. 다 함께 ‘시카타 가 나이(Shikata Ga Nai)’를 외치고, 가격 하락 시 매수하라!”고 말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100년 역사' 영국 투팅마켓, 비트코인 결제 도입... "첫날 매출 2배 기록"



(출처=X/Bridge2Bitcoin) 투팅마켓의 메자닌 바가 비트코인 결제 도입 첫날 2배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930년에 설립된 영국 런던의 상징적인 투팅 마켓(Tooting Market)이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했다.

20일(현지 시각) 크립토뉴스는 영국 최초의 식품 시장 중 한 곳인 투팅 마켓의 식당, 바, 레코드 가게 등 8개의 상점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결제 채택은 지난 18일에 열린 비트코인 모임을 계기로 시작됐다. 비트코인 열성 지지자인 해슬리 자일스(Hashley Giles)는 비트코인 순환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브리지 투 비트코인(Bridge 2 Bitcoin)과 협력하여 상인들의 비트코인 결제 채택을 주도했고, 이후 8명의 상인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수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21>

3. Blockchain Financial

'100년 역사' 영국 투팅마켓, 비트코인 결제 도입... "첫날 매출 2배 기록"

18일 행사에는 커머스블록(CommerceBlock), 코인쉐어스(CoinShares), 머큐리 레이어(Mercury Layer), 시브킷(Civkit),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자들과 같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요 참가자들이 참여했다.

브리지 투 비트코인에 따르면 비트코인 결제를 채택한 후 투팅 마켓의 메자닌(Mezzanine) 바는 결제 시스템 도입 첫날 평소 매출의 두 배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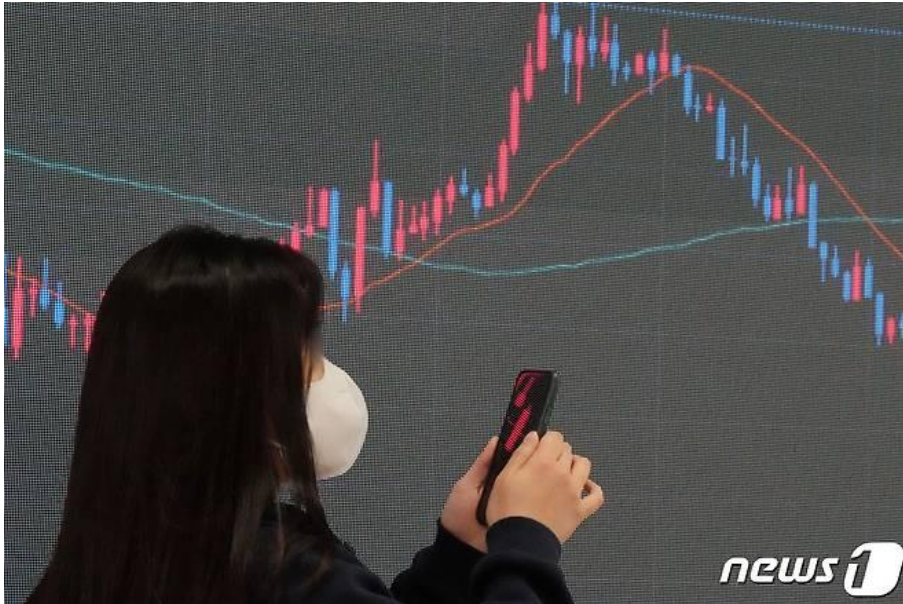
브리지 투 비트코인은 영국의 기업들이 낮은 수수료 또는 수수료 없이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며, 즉각적인 결제 처리와 청구 취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스탯ISTA(Statista)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받고 있는 기업은 200곳 이상이다.

3. Blockchain Financial

규제 속으로 들어가는 韓 가상자산업... '개미 투자자' 어떻게 변할까

일부 NFT, 가상자산 취급에 투자 선택지서 더 배제될 듯
과세 시기에 맞춰 규제 레이더서 벗어난 DEX 이용률 증가할 듯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울 시내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이르면 이번 달에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상자산 분류 기준 발표에 이어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 사례안 발표를 예고하는 등 가상자산업의 규제 환경 마련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까지 앞두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의 변화까지 전망된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해 그간 이용자 보호법 통과 이후 과제로 여기던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 가상자산 상장 가이드라인 등을 차례대로 발표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618061941427>

3. Blockchain Financial

규제 속으로 들어가는 韓 가상자산업... '개미 투자자' 어떻게 변할까

다만 국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간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NFT 중 일부가 가상자산으로 판단되는 데다 마침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까지 앞두고 있어 투자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또 당국의 지침 아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 유지 심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고 시가총액이 커 변동성이 적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이전보다 선호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 차가운 NFT 시장...국내 투자 선택지선 더 소외될 듯

우선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 선택지에서 NFT란 선택지의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블록에 따르면 최근 이더리움의 NFT 일일 거래자 수가 20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4000명을 하회했다. 올해 들어 NFT 마켓플레이스의 거래량은 1월부터 계속해서 감소세다.

이같이 NFT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았던 NFT들 중 일부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서, NFT에 대한 투자심리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당국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NFT들을 가상자산으로 분류했는데, 특히 다량 발행된 NFT 중 고유성이 없는 NFT들이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

3. Blockchain Financial

규제 속으로 들어가는 韓 가상자산업... '개미 투자자' 어떻게 변할까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아닌 탈중앙화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선호도 올라갈 듯

가상자산 대비 NFT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직접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공간도 국내 중앙화거래소(CEX)에서 탈중앙화거래소(DEX)나 개인 지갑과 연결이 가능한 해외거래소 이용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의 과세와 연관돼 있다. 현재 업계 안팎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목소리가 큰 것이 상대적으로 규제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DEX에 대한 이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동혁 디스프레드 연구원은 "아직 규제의 영향력이 미비한 DEX에 상장된 코인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탈중앙성을 지닌 개인 지갑과 연결이 가능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선호도 증가도 마찬가지다.

재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포함한 부대비용을 뺀 값을 '소득'으로 책정하고, 소득이 연 250만 원을 넘을 경우 22%의 세율(지방소득세 2% 포함)을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비과세소득 한도가 낮게 책정됐다는 여론과 함께 과세 유예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이 지난 4월 청원인 5만 명을 넘겼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https://v.daum.net/v/20240618061941427>

3. Blockchain Financial

설 곳 잃는 코인마켓 거래소들... '지닥'마저 서비스 종료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이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17일 지닥의 운영사 피어테크는 거래소 공지를 통해 오는 7월 16일부로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원가입 및 입금지원이 현재 종료된 상태이며, 한국시각 오는 6월 24일 오전 11시 BTC, XLM, ETH, XRP, PCI, USDT, KLAY, BOX, MF, MTRA, DP, NFTC, KLEVA가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될 예정이다.

자동출금 지원 종료 및 수동출금 전환 시기는 7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적용된다. 전환 이후에는 수동출금 신청 또는 잔고 조회시 별도 정책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피어테크는 "시스템 개편으로 향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닥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금융기술사로서의 역할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시 찾아뵙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18>

3. Blockchain Financial

근거없는 업비트 상폐 목록에 김치코인 급락 [매일코인]



챗GPT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업비트 상폐(상장폐지) 목록'이라는 내용의 근거없는 글이 돌면서 업비트에 상장된 알트코인들이 급락했다.

특히 코인의 전체 거래량중 업비트 비중이 큰 사실상의 국내 독점 코인이나 한국인이 개발 또는 운영에 참여하고있는 코인들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주말간 평이한 흐름을 이어갔다.

3. Blockchain Financial

근거없는 업비트 상폐 목록에 김치코인 급락 [매일코인]

한글명	현재가	전일대비	거래대금
센티넬프로토콜 주 UPP/KRW	71.60	-10.80%	3,753백만
아하토큰 주 AHT/KRW	6.476	-11.15%	3,089백만
게임빌드 GAME2/KRW	4.880	-10.16%	6,487백만
메타디움 주 META/KRW	36.00	-11.20%	2,861백만
토카막네트워크 주 TON/KRW	1,864	-7.72%	11,183백만
크레딧코인 CTC/KRW	696.1	-4.12%	20,242백만
스팀달러 SBD/KRW	3,902	-4.95%	1,163백만
웨이브 WAVES/KRW	1,397	-4.64%	13,387백만
아이큐 IQ/KRW	9.560	-6.55%	4,004백만

17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센티넬프로토콜은 오전 10시 20분 현재 전일보다 10.80% 하락한 71.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코인은 전일도 9.32% 가량 하락했다. 이틀연속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하토큰 또한 전일 8.84% 하락에 이어 이날 오전들어서도 11.15% 하락이 나타났다.

3. Blockchain Financial

근거없는 업비트 상폐 목록에 김치코인 급락 [매일코인]

게임빌드나, 토크마크네트워크, 크레딧코인 등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이들코인은 전체 거래량 중 업비트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센티넬프로토콜의 글로벌 거래량중 97.7%가 업비트에서 나온다.

아하토큰 또한 업비트 거래비중이 97.75%에 달한다.

[상폐 예상목록]

1. [redacted] (업비트 99.9% / 단독상장 / 김치)
2. [redacted] (업비트 99.9% / 유통량 불분명함)
3. [redacted] (업비트 50% / 유통량 불분명함)
4. [redacted] (업비트 99.9% / 단독상장 / 김치)
5. [redacted] (업비트 100% / 김치)
6. [redacted] (업비트 93% / 김치)
7. [redacted] (업비트 95% / 김치 / 유통량불분명)
8. [redacted] (업비트 99%)
9. [redacted] (업비트 90% / 김치)
10. [redacted] (업비트 100% / 김치)
11. [redacted] (업비트 98% / 김치)
12. [redacted] (업비트 100% / 김치)
13. [redacted] (업비트 70% / 유통량 불분명)
14. [redacted] (업비트 80% / 유통량 불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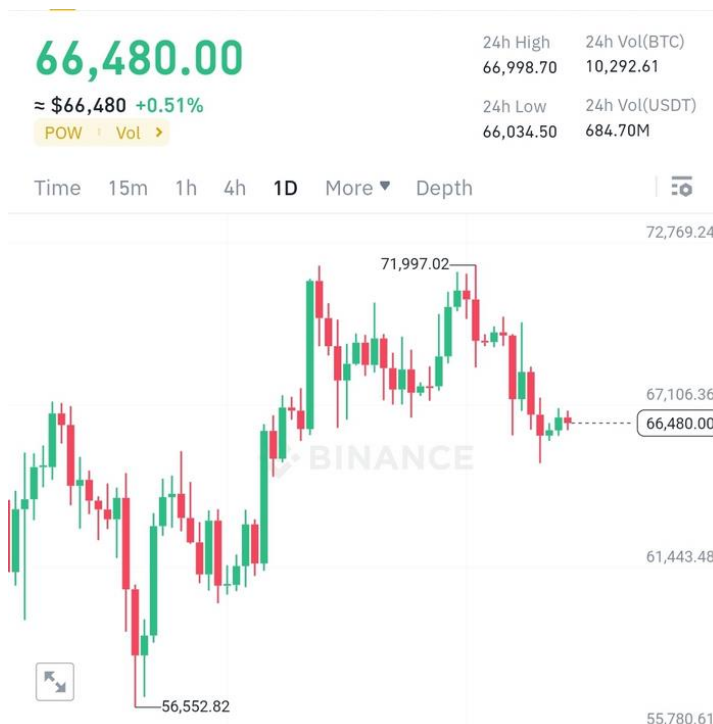
3. Blockchain Financial

근거없는 업비트 상폐 목록에 김치코인 급락 [매일코인]

이들 코인들은 다음달부터 거래소들이 코인들의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소식과 함께 '업비트 상폐(상장폐지) 목록'이라는 글이 돌면서 급락하고 있다.

해당 글에선 '업비트 단독상장', '김치', '유통량 불분명'등의 이유로 24개의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가 예정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업계에선 투자자들이 근거없는 글에 속지 말아야한다고 조언한다. 이전에도 가상자산시장에선 이와 비슷한 목록이 국내 규제 상황에 대한 소식과 함께 그간 몇번이나 돌았기 때문이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짓 소문이 투심을 악화시켜 해당 코인들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이 조심해야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글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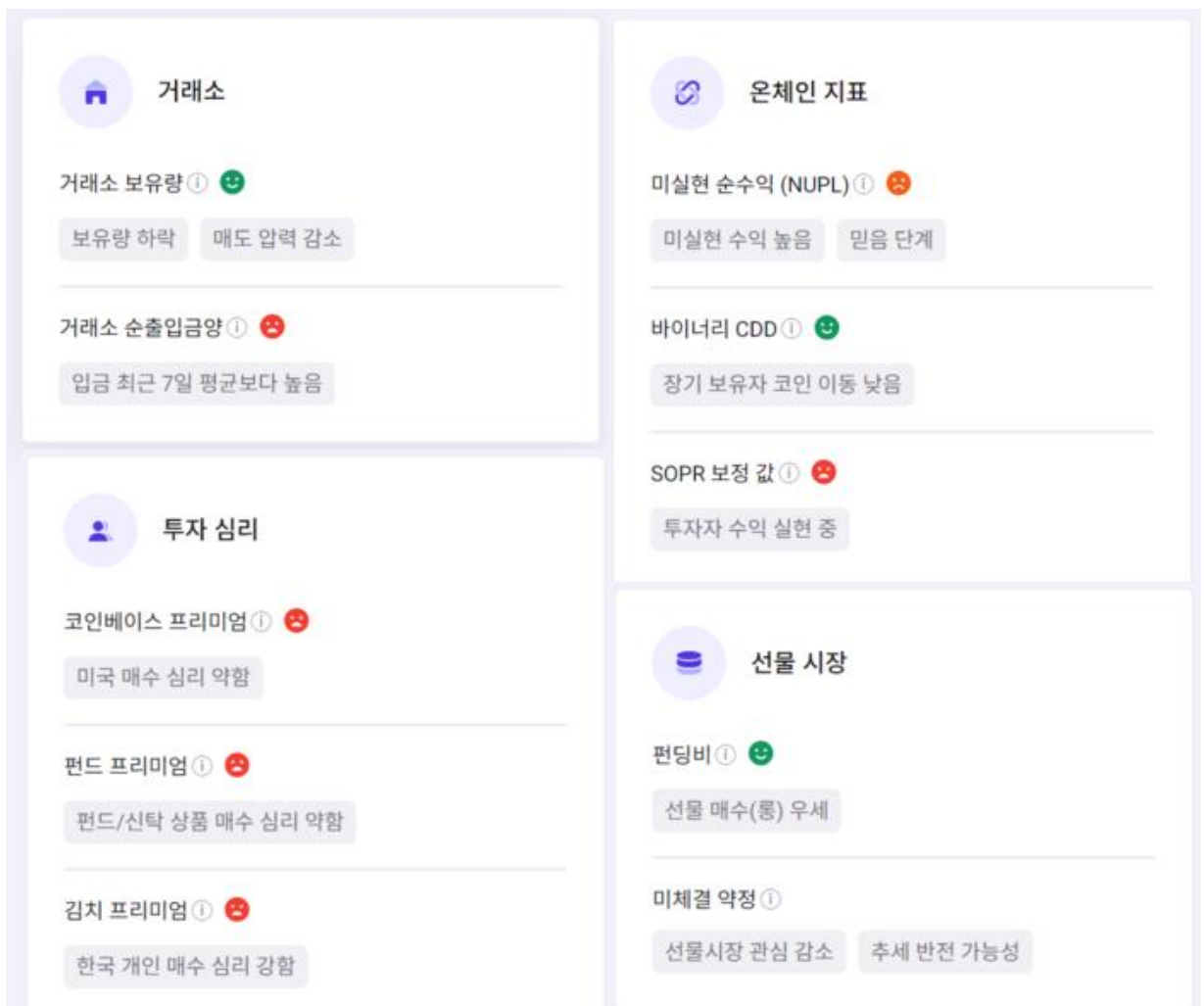
3. Blockchain Financial

근거없는 업비트 상폐 목록에 김치코인 급락 [매일코인]

한편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68% 상승한 6만6676달러에 16일 거래를 마쳤다.
이더리움은 1.56% 상승한 3624달러를 기록했다.

주말간 비트코인은 큰 움직임이 없었다.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의 대형 알트코인은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3. Blockchain Financial

근거없는 업비트 상폐 목록에 김치코인 급락 [매일코인]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총량은 282만8248개로 전날과 같았다. 거래소 보유량이 하락하면 매도될 수 있는 코인의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미국 투자자들의 매수심리를 나타내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0.052%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약세로 전환되면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시장의 매수심리는 나타내는 김치프리미엄은 1.93%다.

선물시장에서 포지션을 아직 청산하지 않은 계약 수를 나타내는 미체결 약정은 전날보다 1.19% 늘었다.

3. Blockchain Financial

금감원 "가상자산 발행·상장, 이번 가상자산법에 포함 안돼"



금융감독원이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 가상자산의 발행 및 상장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총괄팀장은 2024 디지털금융포럼에 참석해 "이번 법안은 불공정 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 내용을 우선적으로 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장 부분은 법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거래소별로 최소한의 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그에 걸맞은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 것으로 기대 중"이라며 "(법문에는) 자율협의체가 스스로 상장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감독 당국이 지원할 것으로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금감원 "가상자산 발행·상장, 이번 가상자산법에 포함 안돼"

한편 가상자산법에는 시세조종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도 불공정한 행위로 명시돼 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특성상 상장 후에는 거래소도 내부자가 된다"며 "거래소 내 상장 담당자들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각별히 주의하며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하위 규정들과 시행령, 감독 규정, 시행 세칙 등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3. Blockchain Financial

'디지털 금' 넘어 '서비스 생태계'로?...기रो에 선 비트코인



(출처=X/ZeroHashX)

비트코인을 상징하는 서사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디지털 금을 넘어 서비스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그 골자다.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기가 어려웠지만 최근 레이어2를 표방하는 프로젝트들이 늘면서 비트코인 판도 서비스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자체를 보다 쉽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중량급 이슈로 부상했다.

최근에는 OP_CAT가 초미의 관심사다. OP-CAT는 10줄 정도 코드를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디파이 등 다양한 서비스 친화적으로 바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OP-CAT이 채택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보다 나은 커스터디(custody, 수탁)부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3. Blockchain Financial

'디지털 금' 넘어 '서비스 생태계'로?...기로에 선 비트코인

등에선 이미 대중화된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선이 가능해진다.

OP_CAT를 지지하는 탭루트 위자드의 우디 워트하이머(Udi Wertheimer) CEO는 "다른 체인들에서 봤던 것과 매우 유사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제로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비트코인은 훨씬 더 지금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실제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해 얘기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OP_CAT는 비트코인 외부에서 만들어 갖다 붙일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비트코인 생태계에선 큰 일로 통한다.

우선 커뮤니티와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개편에 동의하도록 하는게 쉽지 않다.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들은 최소 1년에 한번씩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만 비트코인은 2021년 이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지 않았다. 변경이 적을 수록 안정성과 보안성에 좋다는 논리에 따라 일부러 그대로 있었던 측면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OP_CAT은 비트코인에 대한 고정 관념을 파괴하는 중량급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OP_CAT는 2023년 10월 에탄 헤일먼과 라민 사보우리가 선보였다. OP_CAT는 최근 시그넷(Signet)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테스트넷에 투입됐고 BIP-420라는 번호가 붙었다. 업그레이드 관련해 진지한 고려 대상이 됐다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디지털 금' 넘어 '서비스 생태계'로?...기로에 선 비트코인

OP_CAT를 지지하는 암호화폐판 유력 인사들도 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솔라나랩스 공동 창업자인 아나톨리 야코베크는 BIP-420을 소셜 미디어 X(트위터)에 추가했고 탭루트 위자드는 2월 OP_CAT를 프로모션하는 퀀텀 캐츠 오디널즈 컬렉션을 선보였다.

4월 탭루트 위자드는 OP_CAT를 사용해 앱을 개발하는 프레임워크 개요를 담은 백서도 공개했다.

탭루트 위자드에 투자를 한 UTXO 매니지먼트의 헨리 엘더(Henry Elder) 수석은 "OP_CAT이 진행된다면 모든 체인들에서 있는 모든 활용 사례들이 비트코인으로 돌아올 잠재력을 열어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예를 들어 OP_CAT가 적용되면 비트코인에서도 같은 코인을 두 번 쓰려고 시도하는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비트코인 컨트랙트인 비 이중성 계약(non-equivocation contracts)이 가능해진다. 사용자 지갑이 해킹을 당하면 지갑 소유자는 해킹된 거래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비트코인 기술 기업 블록스트림의 아담 백 CEO는 "비트코인 커스터디가 외부 프로그래밍성(extra programmability)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OP_CAT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외부 프로그래밍성은 보다 많은 레이어2 역량도 가능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역량은 레이어2 블록체인들과 보다 나은 브릿지를 가능케하고,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OP_CAT가 비트코인에 적용될 수 있을지, 적용되면 언제 가능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등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코드를 건드는 것에 보수적인 이들은 지금 그대로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전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였던 제프 가직(Jeff Garzik)은 비트코인이 OP_CAT과 같은 작은 업그레이드조차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398>

3. Blockchain Financial

MM 막은 이용자보호법...쪼그라드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



그래픽=픽사베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쪼그라들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억원들 돌파하며 9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거래소 거래량 자체는 연일 줄어드는 모습이다. 업계선 투자자 관심이 줄어든 가운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켓메이킹(MM)을 하는 세력들까지 빠져나가 거래량이 추락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MM은 거래소에 적절한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가상자산 MM은 유동성을 공급하기보단 시세를 조종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대안 없이 MM을 제거해 가격 안정성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 Blockchain Financial

MM 막은 이용자보호법...쪼그라드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

20일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카이코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이 급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간 평균 거래량은 60억달러(약 8조2818억원)로 1분기 평균(350억달러) 대비 크게 줄었다. 특히 업비트의 거래량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월 이후 최저 수준인 67%까지 밀려났다.

지난 1월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점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활기가 돌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는 바로 직전 불장이었던 2021년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비트코인이 8000만원에 육박했던 지난 2021년 4월 업비트·빗썸·코인원의 일일거래대금의 합은 20조원 내외를 등락했다.

특히 비트코인 이외에도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거래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일거래대금을 끌어올렸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상자산 시장 시장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난 2021년 10월엔 44%까지 떨어졌다.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해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밀어낸 것. 반면 19일 기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5%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유동성은 개선되고 있다. 카이코는 이에 대해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9일 기준 코인베이스의 일일거래대금은 각각 3조8590억원이다. 같은날 업비트의 일일거래대금은 1조6898억원이다. 특히 업비트는 2021년 9월 1일 기준 전체 거래소 398개 중 거래량 2위에 오른 바 있다.

업계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달 19일 시행됨에 따른 MM 세력의 철수로 인해 거래량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3. Blockchain Financial

MM 막은 이용자보호법...쪼그라드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

▲불공정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 ▲벌칙을 골자로 한다. 특히 특히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보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즉 가상자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MM 활동이 완전 중단되는 것이다. 가상자산 MM은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특히 이는 시세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몇몇 MM들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핑계로 시세 조종을 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MM을 두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MM이 빠지면 거래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MM이 주식에서 온 용어인데, 가상자산 시장에서 변질된 부분이 있다. 피해를 본 이는 선량한 투자자"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책 없이 MM을 막아버린 것 같다. MM은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MM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 같은 제도를 마련 했어야 했는데 대안 없이 제거해버렸다.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로 볼수도 있다"고 말했다.

4. DaWinKS Overview

Blockchain Financial Technique



Digital ATM/DTM & Crypto ATM/CTM

-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DPEC)과 연동한 DTM, CTM & QR Pay POS 운영
- 전세계 여권 및 신분증 위변조 판별, 판독과 안면인식 -> 본인확인 고도화
- KYC, AML 체크 후 QR(Wallet) 발급
- QR(Wallet) Pay 연동 실물화폐 및 암호자산 결제 POS(App) 시스템
- Metaverse/가상세계 & IRL(In Real Life) /현실세계 연동 NFT, Defi 금융서비스 실현

특허 기반의 차별화된 DIGITAL ATM 기술



- 특허 기반의 독자적 신분증 위변조 판독기술로 KYC 완벽 구현 - 1차 본인인증
- 신분증(여권) 사진과 AI 얼굴영상(Liveness/2D,3D) 매칭 - 2차 본인인증
- 고도화된 본인인증(KYC) 기술로 불특정다수인(외국인포함) 대상 외환 혁신금융 서비스 제공
- 입출금·결제·환전·송금·충전·예금·대출 등 기존 금융 핀테크 + Crypto Defi 융합 플랫폼
- 전세계 유일의 가상자산과 명목화폐 동시 운영 ATM 플랫폼

2024-26호

Thank you

DIGITAL(CRYPTO) ATM · PAYMENT

DPEC PLATFORM



DAWIN
Blockchain Total Solution